

출력용

구글 번역을 통해("증강 인류") 세계적 연대망이 더 촘촘해지고 있는데 한국어 서비스만 유독 후져서 우리 활동이 한국어 이용자만을 타겟팅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져 있음.

페이스북은 싸이월드의 확장판이라고 평가하는데, 지인들에게만 보여주고 싶은 그 욕구를 뭐 어쩔 수가 없다. 어쨌든 이쪽은 닫힌 서비스이기도 하고, 서비스하는 방식에서 배울 점은 많지만 닫힌 관계와 폐쇄적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므로 진보넷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적합하지 않다. 다만 페이스북만이 아니라 위치정보, 사용자 취향 정보 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점점 고급화되고 있는데, 예컨대 기존 검색서비스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모두 검색하는 데에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사용자와 연관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진보넷의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상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자 행태 분석 등은 불가능하다.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아무튼 인터넷 이용자 계급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에서 주요 타겟팅에 대한 확정 없이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힘들다. 전체적 전략 수준에서 모델을 찾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불가능하여, 진보넷에서 기존의 플랫폼 사업을 계속 한다는 전제 하에 www.jinbo.net을 통해 구현하려던 허브적 기능을 보완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왔다.

스토리파이

<http://storify.com/>

이야기를 만들자!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혹은 남이 쓴 거라도 날 것의 데이터를 모아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 있다면, 이것은 최적의 플랫폼이다. (위키는 가르칠 게 너무 많고, 백지가 막막하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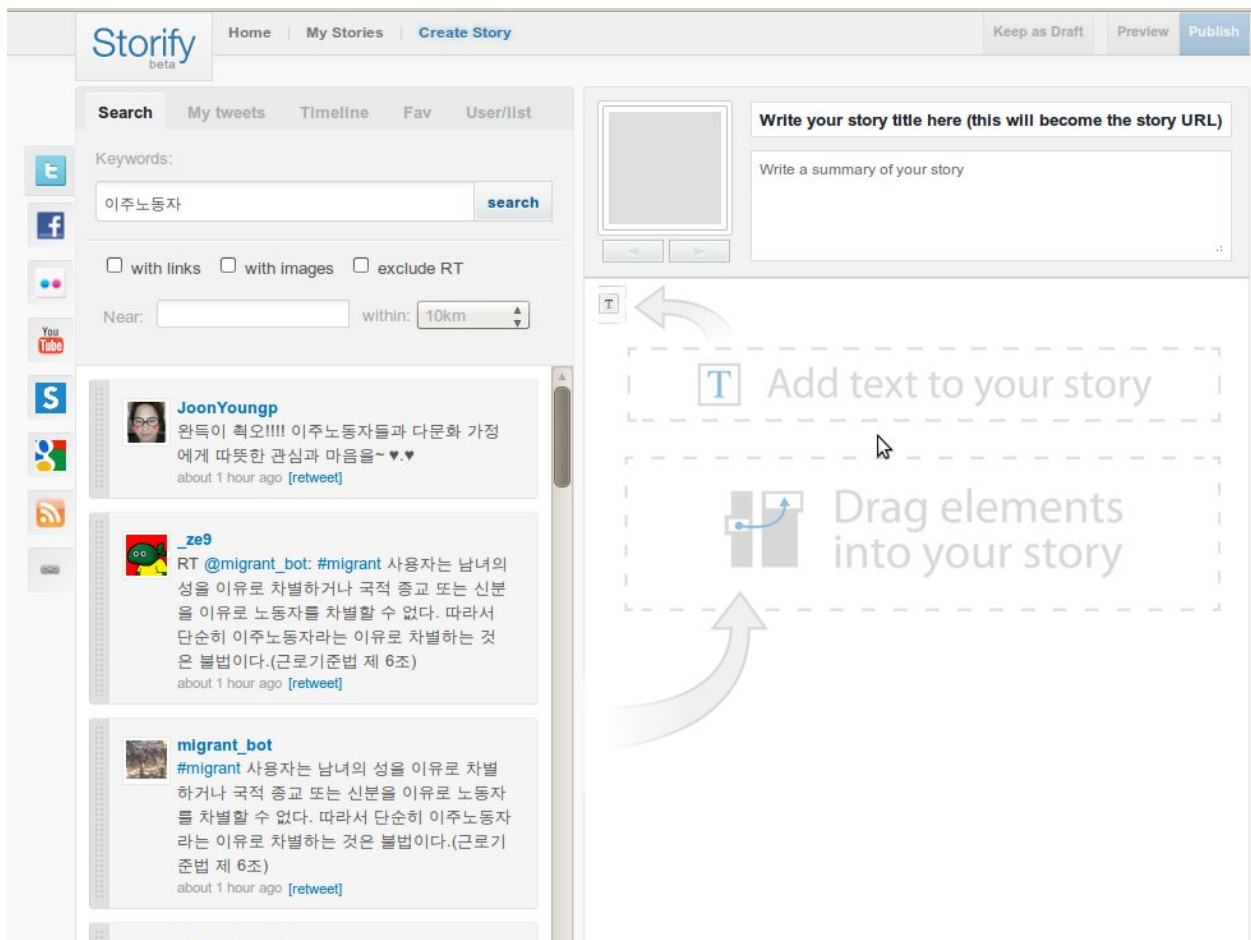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용한 툴을 제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때의 자기 이야기란 꼭 당사자 운동을 일컫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포함)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의 동향 상 무엇보다 "시간을 줄여주는 것!" 이것이 가장 요망한 일이다. 트위터식 단문 메세지와 휴대용 기기의 대중화의 결과든 원인이든 간에, 사람들은 쉽고 빠르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이야기를 생산하기 위해 툴을 배우고, 긴 글을 쓰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낼 필요가 없다(극단적이지만); 심지어 트위터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냥 '리트윗'하면 된다. 남의 이야기이지만 바로 곧 내 이야기이기도 하다.

다시 시간을 줄여주는 것을 강조하자면, 현장에서 속보를 올리는데 게시판보다는 트윗이 훨씬 좋다. 이런 속보가 휘발성이라서 이걸 모아주는 사이트를 계속 고민했다. 그런데 이 속보들만이 아니라 속보에 더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모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한 가지 이슈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면? 더더군다나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새로 펴가고 펴오지 않아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

Storify는 이미 #OccupyWallStreet가 투쟁 일지 기록에 쓰고 있듯이, 속보와 아카이빙을 잡는, 사회운동을 위한 최적의 모델이다. 어떤 주제에 대한 자동 검색 결과, Feed 등을 자동으로 구성해 보기 좋게 꾸며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인간의 손을 거쳐 편집된 데이터만이 가치를 가지는데, 스토리파이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플랫폼이다.

장점

- script라서 퍼갔을 때 업데이트된 것이 바로 적용된다. 너무 길면 한 번에 전부 로딩하지 않고 페이지 다운에 맞춰서 새로 로딩
- 어느 페이지로 퍼가도 어디서든 각 트윗에 답글/리트윗 가능, 모든 항목 바로 트윗 가능
- 예쁜 비주얼화 : 특히 트윗터 본문의 이미지와 동영상
- 직관적이고 쉬운 위치워 에디터



- 어디서 얼마나 봤는지도 출력된다.
- 새하얀 바탕에서 새로 작성해야 하는 막막함이 없다. 이미 있는 글감들을 쉽게 편집해서 넣을 수 있다.

또 제목이 바로 글 주소가 되고(영문만 지원) 스토리파이의 썸네일 이미지도 글감 내용에서 자동으로 지원하여 게으른 유저들이 쉽게 보기 좋은 이야기를 꾸밀 수 있다.

storify 소스

트위터(검색:해시태그, @ID), 페이스북, youtube, Flickr, Storify, rss Feed, Link + 직접 텍스트 입력(부족한 부분 완벽히 메꿔줌)

사람들이 속보를 트윗으로 올리고 있는데 이 속보도 쉽게 모을 수 있다. 만약 검색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링크' 추가를 통해, 그리고 이 링크는 자동으로 제목-이미지-본문 내용 등을 뽑아주기 때문에 검색 결과의 빈약함이나 최신성을 극복해 준다.

스토리파일로 작성한 삼화고속 이야기 샘플: <http://storify.com/taiji202/the-strike-of-samhwa-express-union>

the strike of Samhwa Express Union

Storified by D-YaPing, October 24, 2011 at 16:52

Tweet 0 Like 0

Embed

삼화고속 노조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 삼화고속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http://t.co/wCffP2Ew>

taiji202
October 24, 2011 at 16:36

삼화고속 노조는 왜? 파업하는가?

[영상] 삼화고

[영상] 삼화고속노조가 왜 총파업을 해야하는가?, 3차 총파업 출정식 현장
mediacanon, October 11, 2011 at 7:27

[인터뷰] 나대진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삼화고속지회장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정규직 요구했다 해고 ... 자고 일어나니 비정규직" 이명박 정부 들어 비정규직 임금격차 커져

“ 인천 삼화고속 민주노총 노조원이 울들어 세 번째의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으레 그러하듯 회사는 직장폐쇄로 맞섰습니다. "소변 3번 보고, 식사는 김밥 한 줄로 때우고, 19시간 운전하라고?" <http://t.co/2CXVsQx8>

sisain_editor
October 24, 2011 at 14:31

시민들의 목소리

D-YaPing
incheon, korea(s)
@taiji202
<http://blog.jinbo.net/taiji0920>

연대와 소통의 진보넷
jinbo.net+팔레스타인평화연대pal.or.kr 이종멤버
십 활동가/막영어 트윗 막함/ activist of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jinbonet)&Palestine Peace
Solidarity(@pps_kr)

Followers 0 People
Please login to follow me

17 total views
5 views on: stonfy.com
11 views on: jinbo.net

↑ 이어서 시민들의 응원 트윗 따리릭

<http://adbusters.org>

An ad-free international magazine for activists fighting to change the way information flows and meaning is produced in our society.

Followers
40 People


15k total views

334 views on:
storify.com

14.6k views on:
adbusters.org

16 views on:
occupyr.com

12 views on:
dailyharrison.com



History has just been made at McPherson Square, D.C... #occupydc #OccupyKSt #ows #OccupyWallStreet
<http://twitpic.com/72yvh5>
browrecluse1 October 20, 2011 at 15:53

“ Cops have backed down and the crowd has swollen back up to about 150-200 at Westlake

OccupySeattle
October 20, 2011 at 14:41

Fiddling While Rome Burns by Ingrid D. Rowland | NYRblog |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nybooks.com

On Thursday, my students and I walked along from the Colosseum to the Cathedral of Saint John Lateran in Rome. Two nights later, those same Roman streets became a battleground, as a group of about 1500 black-clad, hooded incognito street fighters succeeded in derailing one of the largest economic protests that has yet been staged in any western country.

“ NPR Gets Radio Host Fired for Occupying: <http://bit.ly/rjQVXV> v @ebogjonson

brownisthecolor
October 20, 2011 at 14:00

↑ 아큐파이 월스트리트의 storify 일부

극복할 점

- 현재 베타 서비스 중이긴 하다.
- 현재 모바일뷰는 지원하지 않음. 모바일 작성도 어려움.
- 협업이 불가능함. 협업이 되면 더 좋을 듯
- 텍스트 입력 시 HTML 지원됐으면.
- 저작권 문제.

구현 방법

<http://embed.ly/pricing> 에서 엔진을 살 수 있다. 1달에 25만원 정도.

진보넷 방침이 자체 기술 개발에서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기성 상품 구입(예:구글 서치)으로 바뀌었다.

정책 중심, 지원 사업

사례1. 코드핑크(Code Pink)

<http://codepink.org/>

평화, 복지, 여성 등 엄청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캠페인도 너무 많고 온라인샵도 있고 각 주제 별로 한 운동단체를 꾸려도 될 정도이고, 전국 단체라 지방 소식은 또 별개고, 같은 컨텐츠가 이메일과 기사, 캠페인 소식 등 여러가지로 생산되지만 충돌 없이 잘 조화되게 만들고 있다. 트렌드 반영 속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디자이너가 결합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오프라인 유인물 등에 대한 놀라운 디자인들... 홈페이지를 잔뜩 운영하지만 사이트간 이동 네비게이션도 좋다. 이것이 바로 기술팀이 붙은 결과...일 거라고 생각.

사례2. 애드버스터(Adbusters)

<http://www.adbusters.org/>

디자이너가 드루팔, 워드프레스 등으로 많은 홈페이지를 정말 잘 만들고 운영함...; 현재 occupywallstreet의 실질적 사령탑(?) 노릇을 하고 있다. storify도 여기서 알게 되었듯이, Livestream이라든지 meetup 등 최신 웹상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가져다가 운동에 가장 적합하게 잘 쓰고 있다. 세계적 운동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이 필수적인데, 각 지역 포럼과 전술, 매일매일 활동 정리(스토리파이)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임.